

4/6(수) 에스라 묵상 15

에스라 8:24-36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를 떠나기에 앞서 아하와 강가에서 모여 제 2차 포로 귀환자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겸비하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서 그들을 도와줄 보병과 마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22절하-23절,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성전에 바친 예물

에스라는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에 열 두 명을 따로 세우게 됩니다(24절, “그 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열 두 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열 명을 따로 세우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페르시아 땅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드린 예물을 주의 깊게 다루기 위해서입니다(25절,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 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예물을 취급하기 위해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열 두 명을 따로 세웠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들에 대해서 거룩한 자들 그리고 백성들이 바친 예물을 거룩한 것이라고 말합니다(28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 때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성막(전)을 위한 직무를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더이상 레위 지파와 같은 인간 중보자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고 주님과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벧전 2: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도 그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주님께 드리며 주의 뜻대로 분별하고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롬 12:1-2,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하와 강을 떠나

아하와 강에서 에스라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며 온갖 준비를 철저히 다하고 나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사히 예루살렘 땅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31-32, “첫째 달 십이 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배고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리고 에스라와 2차 포로 귀환자들은 삼 일간 예루살렘에 머물고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예물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처리합니다(34절,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 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 때에 기록하였느니라”). 그 후에 에스라는 가장 먼저 다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를 통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6절에서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이 에스라와 백성,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다는 것은 유다 백성들의 생활과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36절,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 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제 2차 포로 귀환 때는 1차와 3차 때와는 달리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을 하지는 않았지만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일을 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한대로 제 2차 포로 귀환의 목적은 어제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데 건물로서의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아니라 영적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아하와 강가에서 레위 자손을 찾고 그들을 불러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하고 기도한 것은 단순히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영적 재건을 위해 지도자들이 먼저 영적으로 겸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외적인 교회의 재건과 숫적인 부흥이 아니라 내적인 교회의 재건과 영적 각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가 함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만 동시에 에스라가 거룩한 레위인들을 찾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거룩하고 충성된 주의 예비된 성도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친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며 한탄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기 전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시면서 주의 일꾼을 찾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주의 충성되고 신실한 일꾼이 항상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내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찾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닙니다. 누가 주님의 충성된 일꾼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먼저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가 사역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맡은 바 사명을 다하고 또, 에스라처럼 몸소 행동하고 연구하며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 2022년 오픈도어즈 월드워치 리스트(Open Doors World Watch List)에 따르면 이란은 기독교인이 되기 가장 어려운 나라 9위에 올랐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이기도 하다. 이란의 교회 성장이 가능한 이유는 디지털 플랫폼과 소셜 미디어 등 사이버 공간에서 교회의 전도와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디지털 기술과 소셜 미디어를 통한 사이버 공간이 건전한 복음 전도와 가르침의 장으로 활용되어 복음을 듣기 어려운 다수 세계의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교육 부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대만 정안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